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특별정상회의 계기 활발한 인프라 외교활동 추진

-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을 방문하여 수도 이전 관련 브리핑 -
 - 라오스, 미얀마, 필리핀 인프라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 수주 지원 -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6일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활발한 인프라 외교 활동을 추진하였다.
- 우선, 김현미 장관은 한국·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협력 MOU와 관련하여 조코 위도도(Joko Widodo) 대통령을 방문하여 행정수도 이전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.
-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립하여 조성한 도시가 인구 24만명으로 성장하였으며 사업 과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를 비롯, 공기업들이 함께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,
 - 이제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시티로 조성 중이며, 이러한 한국의 경험을 인도네시아와 공유하고 싶다고 설명했다.
 - 특히, 조코위 대통령은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에 큰 관심을 보였고,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당부하였다.
- 이어, 김현미 장관은 라오스, 미얀마, 필리핀 인프라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는 등 인프라 외교 활동을 추진하였다.
- 라오스 분찬 신타봉(Bounchanh SINTJAVONG)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에게 현재 추진 중인 공간정보, 국도, 하천관리 사업 외에 인프라 펀드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으며,

- 이에, 분찬 장관은 그간 한국의 라오스에 대한 인프라사업 지원에 감사하며, 앞으로 루앙프라방 등 두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예정인바 한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
- 미얀마 한 쯔(Han Zaw) 건설부 장관에게는 한-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, 달라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원 등을 요청하고, 고속도로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을 전달하였다.
- 이에, 한 쯔 장관은 경제협력 산업단지 등 한국과의 협력 사업이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, 앞으로 스마트시티 등으로 인프라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.
- 필리핀 어네스토 페르니아(Ernesto M. Perinia) 국가경제개발청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필리핀이 추진 중인 철도, 공항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, 스마트시티와 ITS 협력을 제안하였다.
- 이에, 페르니아 사무총장은 필리핀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, 우수한 한국 건설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.
- 김 장관은 “이제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의 주력시장이 된 아세안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한-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고위급 외교 활동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”면서 “앞으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

2019. 11. 26.

국토교통부 대변인